

칼럼

장기채 주필



100세 장수의 보편화 시대 온다

우리나라 올해 노인인구는 738만 1천 명(2018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14.3% 이상이 고령사회에 직면해 있다.

평균수명도 해마다 증가한다.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2011년 기준 여성이 84.4세, 남성이 77.6세로 지난 40년 전보다 약 20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학의 발전 등으로 기대 수명까지도 증가추세에 이르게 했다.

또한 2009년 UN의 '호모 헨드레드(homo-hundred)시대'의 발표는 곧 100세 장수가 보편화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장수가 축복일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젊은 세대들의 부양부담이 늘어나고, 세대 간 단절, 독거노인의 증가 등 우리사회가 짊어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정

이 메달리간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효도는 구시대 유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가족 간에는 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급증한다.

물욕에 어두워 부모를 버리는 자식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본다. 불효자를 상대로 한 부모의 소송도 적지 않다.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재산을 아버지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정도다.

따라서 정부는 '든든한' 노후보장, '활기찬' 노후생활지원, '안전한' 환경구축 및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등 노년기가 두려움의 시기가 아닌 행복한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해 2014년 7월에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충을 통한 노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는 기초연금 지원 대상을 480만 명으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도 5만개를 확대하였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 자원봉사클럽 활동과 노인재능 나눔 활동을 지원하고, 여가 프로그램 보급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빠르게 늘고 있는 노인에게는 일이 있어야 하고 건강도 필요하다.

노후 생활을 풍요롭고 즐겁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의 60대는 노인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활동량이 많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놓고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아직 열심히 일할 나이에 그들이 지닌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커다란 인력 손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노인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해

며 기다리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노인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든 세상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해 생계를 위해 70세 넘게 일한다.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열악한 일자리를 놓고 청년층과 노년층의 세대 간 경쟁도 벌어진다. 정부는 2020년 건강수명을 75세로 높이고, 2030년까지 노인 빈곤율을 30% 이하로 떨어뜨리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가입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노인빈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금부터라도 기초연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제도보완에 총심해야 한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코핀은 전체 재정의 70%를 주민 복지에 쓰고 있다. 이는 사회적 합의 때문에 가능하다. 일본은 '나쁜 머느리' 논쟁을 통해 개인에게 맡겨졌던 노인요양 책임을 사회적 책임으로 바꿨고 노인요양 개호보험을 만드는 토대가 됐다.

일본 고베 재일교포 노인 복지시설인 '고장의 집'은 일본인과 한국인 고령자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며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일본인들은 김치를, 한국인들은 우메보시를 먹으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생활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를 개인에게 맡기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한다. 새겨야 할 말이다.

社說

의약품 오남용 막아야 한다

국내 약물중독 환자가 5년간 7만7000명에 달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걱정이다.

특히 40대의 약물중독이 가장 심각하다니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중독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7만7000명에 달한다.

지역별 의약품중독 진료인원현황을 보면 전체 약물중독 환자가 가운데 경기도가 1만84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1만3355명), 부산(5708명), 인천(5469명), 충남(4760명), 대구(4562명) 순으로 약물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약물중독 진료 현황을 분석했다니 약물중독 환자는 전국적으로 1.7% 감소했지만 17개 시·도가운데 5곳

의 약물중독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약물중독 환자증가율은 대전이 79.8%로 전체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광주(39.1%), 인천(18.6%), 충남(15.5%), 서울(13.7%)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약물중독 환자가 1만3330명으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가 1만1574명, 30대 1만429명, 20대 9088명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청년층의 약물중독 환자는 4년 새 각각 15.72%, 14.19% 증가해 80세 이상(19.57%)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약물중독은 마약류뿐만 아니라 식욕억제제, 수면제, 해열제와 같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의약품 오남용으로도 많이 발생한다.

보건당국은 연평균 1만5000명 독 진료 현황을 분석했다니 약물중독 환자는 전국적으로 1.7% 감소했지만 17개 시·도가운데 5곳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정신고 121
- ▲전기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주력 산업의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 모두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경제적 찬탈마저 일삼으면서 마치 독불장군처럼 행세하면서 이웃나라인 우리나라를 경제적 타격을 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나로 인해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늘 조심할 하지만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 살이다. 필자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있던지 남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그저 내가 맡은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필자 역시 최고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어떤 일을 하던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

락질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세상 사람들은 먼저 알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문제는 남이 아닌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다.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살아도 최선을 다할 수 없다. 자신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자신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은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

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한번 자신이 맡게 된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겠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처럼 모두 남이 하는 일은 쉬워 보이고 자기가 하는 일은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자기의 분분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라는 뜻이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쳐서 각자 위치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경제가 분명히 더 좋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중근 / 광주북부소방서 행정지원담당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